

주제 해설

WORSHIP GOD ALWAYS!

조선 최초의 교회

1879년 10월, 스코틀랜드 출신의 선교사인 존 매킨타이어(John Macintyre)가 자신의 중국 선교에 대해 보고했다. 그 기록에 따르면 만주에서 30여 명의 조선인들이 저녁 예배에 참석했는데, 이것이 조선인들이 처음으로 드린 공식 예배로 알려져 있다.

당시 조선 사람들은 만주의 고려문이라는 곳에서 조선의 홍삼이나 기타 다른 물건들을 가져와 판매했다. 그 조선인들 중에는 서상륜과 서경조라는 형제가 있었다. 두 형제도 고려문에서 홍삼을 팔았는데 그만 병에 걸리고 말았다. 두 사람의 상태는 사경을 헤맬 정도로 심각했다.

그때 존 매킨타이어와 동역하고 있던 존 로스(Jonh Ross) 선교사가 중국 의료 선교사로 섬기고 있던 조셉 헌터(Joseph Hunter) 선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서상륜과 서경조는 헌터 선교사의 도움으로 완치됐고,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기회를 제공한 존 로스 선교사의 사역을 돕게 되었다. 당시 존 로스 선교사는 성경을 조선어로 번역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최초로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는 일에 두 형제가 함께했다.

당시 조선은 쇄국 정책을 펴고 있었고, 그로 인해 성경은 금서였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서상륜과 서경조는 조선어로 번역된 성경을 몰래 조선으로 가지고 들어오려고 했다. 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관군에게 발각되었고, 결국 그들은 관군을 피해 어머니의 본가가 있는 황해도 소래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들은 피신을 간 그곳에서 식구들뿐 아니라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소래 마을에 있던 전체 58세대 중 무려 50세대가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 결과 1883년 5월 16일, 황해도 소래에 조선인들이 세운 최초의 교회, 소래교회가 문을 열었다. 특별한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세계 선교 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나라는 외국 선교사가 조선에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자국민에 의해 세워진 교회가 있는 나라였다. 조선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교회를 세웠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

예배를 사랑한 한국교회

하지만 당시 조선의 상황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1785년 이승훈과 천주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미사를 드리던 중 관군에 의해 검거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조선은 천주교를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종교로 이해했고, 이로 인해 천주교는 크고 작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특별히 1866년 병인년에 일어난 병인박해는 천주교를 크게 위협했고, 이후 약 10년 동안 조선에는 큰 핍박이 계속되었다. 1886년 프랑스와 조선이 국교를 맺고, 병인박해 희생자들을 순교자로 인정한 후에야 비로소 천주교에 대한 박해가 끝났다.

그런데 이런 위협적인 상황에서도, 조선의 기독교 성도들은 교회를 세웠고 그곳에 모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다. 정부의 강력한 위협과 핍박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한국교회는 예배를 신앙생활의 중심으로 생각했고 예배를 사랑했다. 예배의 감격과 기쁨은 조선인들의 신앙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었다. 그 이후로도 한국교회의 신앙생활은 예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주일 예배뿐 아니라,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까지, 한국 성도들은 예배를 사랑했으며 예배를 통해 믿음을 키워나갔다.

현재 한국교회의 예배 모습?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교회의 예배는 어떠한가? 과거 한국교회 초기 성도들이 보여준 것처럼,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있는가? 정치적인 상황이나 주변의 어려움과 상관없이 견고하게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가? 예배의 본질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기초로 예배하고 있는가?

오늘날 한국교회의 예배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 다음의 세 가지를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예배의 대상?

존 칼빈(John Calvin)은 『기독교 강요』에서 인간에게 ‘종교의 씨앗(a Seed of Religion)’이 있다고 지적했다. 종교의 씨앗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일반계시 중의 하나로, 칼빈은 종교의 씨앗 때문에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간의 마음에서 이 흔적을 지워버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종교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누군가를 숭배하고 예배한다.

17세기 수학자, 블레이크 파스칼(Blaise Pascal)도 각 사람의 영혼 안에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 빈 공간(God-shaped Vacuum)’이 있다는 말로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종교성을 설명했다. 두 사람의 지적대로, 사람은 본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되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할 곳을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우기를 원하신다. 하지만 죄로 오염된 인간은 이곳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우려 할 때가 있다. 분명 하나님만이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지만, 많은 순간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위치시키려고 할 때가 있다. 세상에 좀 더 큰 영향을 발휘하려면 지위와 권력을 얻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 잠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할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는 것이다.

잠시 생각해 보자. 우리는 어떤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며, 하나님으로만 채워

질 수 있는 공간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우리가 예배할 대상이 누구인지 바르게 인식하고 있는가?

둘째, 나 중심의 예배?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자였던 에이든 토저(A. W. Tozer)는 『이것이 예배이다』(2006, 규장문화사)라는 책에서 자신의 입맛에 맞는 예배를 찾아 예배하는 것을 ‘사마리아인식 예배’라고 지적했다. 자신이 좋아하는 찬양곡이나 좋아하는 예배 형태를 찾아 예배하는 것, 내가 선호하는 스타일의 설교를 좇아 예배하는 것이 바로 토저가 지적한 사마리아인식 예배다.

사마리아인식 예배의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예배의 중심이 바로 ‘나’라고 생각하는 데 있다. 사마리아인식 예배에서 예배가 좋았다는 것은 자신에게 감동을 준 찬양이나, 자신의 삶을 만져주는 설교가 있을 때다. 자신의 마음에 드는 찬양과 자신의 삶에 위로를 주는 설교, 그리고 예배의 다른 순서들이 내 기대를 충족시켜 주느냐, 그러지 않느냐에 따라 예배가 좋았는지 그렇지 않았는지가 결정된다. 즉 사마리아인식 예배에서 예배가 좋았다는 생각은 철저히 예배의 중심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발견보다,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보다, 당장 내게 감동이 있는지 없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결국 이런 ‘나’ 중심의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한다.

어디 이쁜인가? 때로 예배를 돕기 위한 사역과 섬김이 오히려 예배를 방해하는 것도 보게 된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내가 가진 은사에 대한 감사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은사를 시기하게 될 때, 예배를 돕기 위한 사역이 오히려 예배를 방해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께 반응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과연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인가?

셋째, 참된 예배?

다양한 기술과 멀티미디어의 발달은 교회 예배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 어느 때보다 오늘날의 예배는 화려한 조명과 세련된 음악으로 가득하다. 사람들의 감동을 끌어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특별한 순서들이 예배의 한자리를 차지하기도 한다.

그러나 화려한 음악과 다양한 기술이 예배를 채우면 채울수록, 그것들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면 빼앗길수록,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의 본질을 놓치기 쉽다. 예배를 가득 채운 것들에 집중한 나머지, 예배를 향한 내 마음과 태도는 뒤로하고 단순히 예배에 참석했다는 것으로 예배를 잘 드렸다고 착각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에 절대 빠져서는 안 될, 지극히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알고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큰 문제일 수 있다.

이상의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 먼저 우리는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는 것인지 분명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예배를 돕기 위한 것이 오히려 예배를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해야 한다. 끝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일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요!

이런 이유로 올여름 성경학교 주제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요!”라고 정했다. 우리는 이 주제를 통해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예배를 방해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일을 위해, 예배와 관련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역과 가르침을 본문으로 삼았다.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세 가지의 가르침과 사역을 통해 예배에 대해 정리할 것이다. 그 세 가

지는 다음과 같다.

1과 하나님만 예배해요(마태복음 4:8-10)

2과 예배를 회복해요(마태복음 21:12-13)

3과 영과 진리로 예배해요(요한복음 4:20-24)

올여름 사역을 통해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해야 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것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예배를 회복해야 하며,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함을 가르치려고 한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예배에 대해 함께 생각하고 나누려고 한다.

사역을 시작하기 전, 먼저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길 소원한다.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있는지, 예배를 방해하는 것을 제거하고 집중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가 먼저 우리의 예배를 살펴봐야 한다.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자국어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나라, 핍박을 받는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예배했던 초기의 성도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가슴 벅차 감사의 눈물로 가득했던 우리의 첫 예배, 우리가 먼저 그때의 예배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예배를 삶으로 다음세대들에게 보여주자. 그럴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것이라 믿는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올여름에 넘쳐나기를 기도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롬 12:1).